

북한 김정은 시대의 평양, 평해튼, 그리고 평해트니즘*

안진희** · 심지수***

I. 서론

II. 평양에 구현된 시대별 권력

III. 반맨해튼-맨해튼 스펙트럼

IV. 평해튼의 조건들

V. 평해트니즘의 미래

국문요약

이 연구는 마천루를 통치자의 가시화된 권력으로 보는 관점을 바탕으로 김정일과 김정은 간 권력의 대소를 비교하고자 했다. 김정은 시대 평양의 마천루는 그 전보다 개수는 증가했지만 한 채에 투영된 권력의 규모 면에서는 변동 폭이 거의 없었다. 이는 김정은이 권력을 스스로 얻어내기보다 그 전 세대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다음으로 두 지도자 시대에 나타난 마천루 중심의 도시계획 방식을 비교했다. 그 결과로 김정은 시대 평양은 '평해튼'이라는 별명처럼 뉴욕 맨해튼과의 유사성이 나타났으며, 이를 근거로 평양이 맨해튼을 이상향으로 추구한다는 가정 하에 그 미래를 진단했다. 오늘날 맨해튼의 마천루는 고층으로 갈수록 그 규모

가 커지는 형태까지 선보인다. 이는 어려운 기술인만큼 과시의 권력으로 치환된다. 그러나 평양은 과거의 류경 호텔이 아직도 가장 높다. 고층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공실의 피라미드에서는 그 이상의 발전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신 화려한 조명이 그 어둠을 덮을 뿐이다. 마천루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은 계승 받은 만큼의 힘에서 그 이상의 확산을 꾀하고 있지만, 그 방향과 속도에서 정체되어 있다. 김정은 시대의 빛나는 마천루 도시는 이러한 정체를 감추는 시각적 전략이다.

주제어: 김정일, 마천루, 램콜라스, 르코르뷔지에, 빛나는도시, 맨해튼, 맨해트니즘

* 이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운영비지원(주요사업)사업으로 수행되었습니다(20230068-001,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인프라 통합·연계 기반 구축 연구). 이 논문은 2022년 12월 14일 'KINU 북한도시포럼: 욕망의 모노리스,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 도시변화'에서 발표한 "김정은 시대의 평양, 평해튼, 그리고 평해트니즘"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연구원

***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

I.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초고층 건축물은 그것을 건설하기까지 드는 권력의 힘을 연상시킨다. 호콘 예로브와 칼 크루센(Haakon Gjerløw and Knutsen)은 도시의 마천루를 ‘하얀 코끼리’에 비유하며 독재 통치자들의 가시화된 권력으로 해석한다.¹ 만약 이 하얀 코끼리가 하나가 아닌 여럿이고 그것이 한 사람의 통치에 의한 것이라면, 그 도시의 모든 마천루의 높이와 개수는 한 통치자의 권력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 연구는 김정은 집권 10년 동안 평양에 건설된 마천루를 바탕으로 도시 권력의 총량을 측정해 보고자 하는 시도다.

평양에서 초고층 건축물은 창전거리, 려명거리, 최근 건설된 송화거리 등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의 거리에 여러 채가 모여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김정은 시대의 평양은 ‘평해튼’이라 불리기도 한다. 초고층 빌딩이 서로 가까이 모여 있는 것을 뉴욕 맨해튼에 비유한 말이다.

맨해튼은 1900년대 뉴욕에 건설된 마천루의 숲이다. 렘 콜하스(Rem Koolhaas)는 맨해튼을 건축 기술의 발전과 도심화 현상 사이에서 발현된 초현실적 산물로 보았으며, 이러한 대도시의 형성과정을 지배한 도시 이데올로기를 ‘맨해튼니즘’(Manhattanism)으로 진단했다.²

르 코르뷔지에(Le Corbusie)는 도시에서의 업무 효율과 근로자 편의를 추구하며 빛나는도시(The Radiant City, 1924)를 계획했다. 도심에 초고층 건축물을 집중시키는 한편, 그곳에 경제 생산을 주도하는 인구를 입주시키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이후 파리 중심부에 부아쟁(Voisin) 설계로 이를 구체화했다.³

뉴욕 맨해튼은 자본주의 도시의 대표 격이라 할 수 있고, 빛나는도시 계획은 현

¹ Haakon Gjerløw and Carl Henrik Knutsen, "Autocrats and Skyscrapers: Modern White Elephants in Dictatorships," *V-Dem Working Paper 2017:44*, <<http://dx.doi.org/10.2139/ssrn.2951762>> (검색일: 2022.10.5.).

² 렘 콜하스, "메트로폴리스의 삶, 혹은 밀집의 문화," 렘 콜하스 지음, 김원갑 옮김, 『광기와 밀집문화의 건축: 밀집문화의 건축』 (서울: 세진사, 2001), pp. 69~82; 장용순, "『광기의 뉴욕』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 편집증적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35권 2호 (2019), p. 58.

³ 르 코르뷔지에 지음, 정성현 옮김, 『도시계획』 (서울: 동녘, 2007), pp. 283~296.

대 도시에 대한 비판에서부터 출발한 사회주의 도시의 청사진이다. 이처럼 두 도시는 양극단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초고층 건축물을 공통분모로 한 유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실제로, 콜하스는 빛나는도시 계획이 맨해튼에 대한 비판적 시각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점을 지적한다.⁴

한국전쟁 이후의 평양에서는 르코르뷔지에의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다. 필립 뤼제아(Philipp Meuser)는 평양의 통일거리를 따라 개발된 거대한 살림집에서 르코르뷔지에의 도시 디자인에 대한 환상을 실현하고자 한 노력을 읽어낸다.⁵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평양은 사회주의 도시계획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맨해튼에 비유된다. 최근의 평양을 두고 단지 외관 차원의 변화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이전과 구분되는 도시 이데올로기의 전환이 일어나는 중인가? 이 연구는 북한 김정은 집권 시기를 전후로 평양에 건설된 초고층 건축물에 투영된 도시 이데올로기의 비교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평해트니즘’을 탐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가. 김정은 체제와의 비교 범주 설정

김정은 체제에서 건설된 건축물의 변화 여부는 그 이전 체제와의 비교를 통해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건축에 관한 김정일은 관심은 그의 저작 『건축예술론』으로 알려져 있고, 건축 분야에서의 지도 활동에서도 드러난다.⁶ 김정일은 1980년 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후계자로 공식 인정받은 이후, 같은 시기 동평양지구 개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문수거리 건설에 관여하게 된다.⁷ 이러한 정황에 따라 건축 분야에서 김정일의 활동 시기는 1980년대를 시작으로 볼 수 있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은 도시 건설의 수평적 규모를 줄여들게 했으나 수직적 규모에서는 큰 도전들이 있었다. 1990년 신년사에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사회주의 건설 목표로 제시되어 통일거리에 42층 높이의 초고층 살림집이

⁴ 램 콜하스 지음, 김원갑 옮김, 『광기와 밀집문화의 건축: 광기의 뉴욕』 (서울: 세진사, 2001), pp. 285~296.

⁵ 필립 뤼제아, “건축적 호기심의 방: 평양 거닐기,” 필립 뤼제아 엮음, 윤정원 옮김, 『이제는 평양건축』 (서울: 답디, 2012), pp. 87~88.

⁶ 김정일, 『건축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⁷ 전영선,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평양건설과 김정은의 아파트 정치』 (서울: 경진출판, 2022), p. 148.

들어서게 된다. 비록 완공되진 않았지만 1987년 착공한 105층 규모의 류경호텔 건설 노력도 있었다.

2012년 창전거리의 완성은 김정은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창전거리 재개발은 2008년 시작된 평양 10만 세대 건설사업 중 하나로, 2009년에 『로동신문』에 만수대거리 아파트가 소개됐을 때쯤 본격화됐다.⁸ 2010년은 내부적으로 김정은이 상당한 권위를 갖고 경제사업을 지도하던 시기로, 창전거리 공사 또한 김정은이 지휘하게 된다.

위 내용처럼 김정일과 김정은은 모두 후계자로 떠오르는 시기에 각각 문수거리와 창전거리 건설을 지휘한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두 지도자가 집권 이전부터 관여한 건설 결과물들이 완성된 시점을 각각의 시간적 범위로 정해 비교하고자 한다. 김정일은 1981년부터 2011년까지, 김정은은 2012년부터 현재인 2022년까지 평양에 건설된 마천루가 비교 대상이다.

나. 마천루의 위치에너지 측정 및 비교

마천루에 투영된 권력자 간 힘의 대소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유현준의 건축물 위치에너지 산출을 통한 권력 값 측정 방법을 따른다.⁹ 어떤 물체를 높은 곳에 올리 기 위해서는 그 위치가 높을수록 다량의 운동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유현준은 건축물이 돈과 권력으로 만들어낸 노동력에 의한 운동에너지가 위치에너지로 바뀐 결정체임을 강조한다.¹⁰

북한은 권력에 의한 노동력과 건축물의 관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북한은 민영 건설회사가 없고 중장비와 숙련된 인력이 군에 집중된 관계로 대형 건설 현장에 수만 명의 북한 군인들이 동원된다.¹¹ ‘속도전’ 하에 국가가 군인 건설자들의 노동력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결과물인 건축물은 국가, 즉 지도자의 권력을 측정하기에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건축 분야에서의 김정일과 김정은의 활동 시기, 이 두 시기 동안 지어진 마천루의 위치에너지 값을 구하여 그 합을 비교한다. 위치에너지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⁸ “선군시대의 본보기로 일떠선 만수대거리의 만점짜리 살림집들,” 『로동신문』, 2009.10.22., 4면.

⁹ 유현준,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다』 (서울: 을유문화사, 2018), pp. 181~182.

¹⁰ 위의 책, p. 182.

¹¹ 김규현, “건설현장에 대규모로 동원되는 북한군대,” 『송대시보』, 2015.9.7., <<http://www.ssu-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709>> (검색일: 2022.10.27.).

$$mgh = 1/2 \times mv^2$$

⇒ 위치에너지 = 질량 × 중력가속도 × 높이*

* 마천루의 위치에너지 산출에서는 모든 건축물이 같은 질량의 재료를 사용한다는 가정 하에 질량을 부피로 대체한다. 또한 위치에너지 값의 상대적 비교가 목적이므로 산출식에서 상수인 중력가속도 9.8을 삭제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마천루의 위치에너지는 건축물을 4m 간격으로 잘랐다고 가정하고, 잘라낸 건축물의 부피와 그것이 위치한 높이를 곱한 값들의 총합이다.¹²

평양 초고층 건축물의 외관은 스카이스크래퍼페이지(Skyscraper Page) 웹사이트의 건축 다이어그램을 참고하여 건축물마다 위치에너지 값을 산출하기에 적절한 간격을 정한다.¹³

다. 프로그램 분석 틀 도출과 평양 대입

이 연구에서 제시한 ‘평해트니즘’은 콜하스가 뉴욕 맨해튼에 대한 건축적 개념을 ‘맨해튼니즘’이라고 일컫은 데서 착안한 것이다. 콜하스는 저서 『광기의 뉴욕』(*Delirious New York*)에서 고밀도와 고층으로 점철된 대도시의 현상을 고찰하기 위한 분석 모델로써 맨해튼을 선정한다.¹⁴ 맨해튼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바탕으로, 르 코르뷔지에는 파리 한복판에 모든 역사적 흔적을 말끔히 지워 버리고 그곳에 “최초의 반맨해튼을 만들려는 의도”를 계획한다.¹⁵ 그는 저서 『도시계획』(*Urbanisme*)에서 도시가 엄격한 질서에 의해 지어졌을 때 현대도시의 목적에 최적화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¹⁶ 중세의 비계획적인 도시의 흔적이 남아있던 파리 도심부를 60층의 고층 빌딩과 주거용 건물의 합으로 전면 전환시킬 것을 주장한 부아쟁 설계는 도시계획에 관한 그의 사상이 점철된 청사진이다.

파리 부아쟁에 투영된 빛나는도시 계획과 맨해튼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서로 반대되는, 반맨해튼-맨해튼의 관계에 놓인다. 그러나 둘 다 맨해튼이라는 같은 공간적 틀에서 시작된 만큼 유사성을 볼 수 있다. 1) 그리드를 바탕으로 하는, 2) 초고층 건물 중심의, 3) 건축물 외관을 고려한, 4) 도심 속 정원을 포함하는 계획이란 점이

¹² 유현준,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꾸다』, pp. 181~186.

¹³ SkyscraperPage.com, <<https://skyscraperpage.com/diagrams/?cityID=884>> (검색일: 2022.10.14.).

¹⁴ 김원갑, “렘 콜하스 작품에서의 사회적 응축기의 의미,” 『광기와 밀집문화의 건축: 밀집문화의 건축』, p. 47.

¹⁵ 렘 콜하스 지음, 김원갑 옮김, 『광기와 밀집문화의 건축: 광기의 뉴욕』, p. 293.

¹⁶ 르 코르뷔지에 지음, 정성현 옮김, 『도시계획』, pp. 19~25.

그러하다. 이 글은 평양의 마천루를 앞서 제시한 네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반맨해튼(빛나는도시)과 맨해튼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의 평양이 위치하는 지점을 해석한다.

3. 연구 내용과 구성

김정일과 김정은 집권 시기 동안 평양에 건설된 초고층 건축물의 다각적 비교를 통해 김정은 시대를 진단하고자 하는 이 연구는, 평양에 건설된 초고층 건축물에 투영된 권력의 규모 비교(II장), 두 지도자 집권 시기의 건축과 도시계획을 설명하는 이론을 토대로 한 반맨해튼-맨해튼 분석 틀 도출(III장), III장 분석 틀을 통한 김정일과 김정은의 초고층 건축물 계획 비교 및 김정은 시대의 평해트니즘 해석(IV장), 평양 초고층 건축물의 미래 진단(V장)으로 구성된다.

II. 평양에 구현된 시대별 권력

1. ‘초고층’과 북한

고층을 넘어 도시에 독창적인 경관을 남기는 초고층 건축물은 ‘마천루’(skyscraper)란 단어로 그 의미가 한 층 더 강조된다. 마천루는 그것이 가리키는 특정 높이나 층수가 있기보다는 주변 건축물에 비해 압도적인 수직성을 보일 때 부여되는 상대적 개념에 가깝다.¹⁷ 마천루는 시대에 따라 그것이 가리키는 높이가 점차 상승했다. 19세기 후반 뉴욕과 시카고의 초기 마천루는 6~7층의 높이 35m(115feet) 정도다.¹⁸ 현재 독일 부동산 정보회사인 엠포리스(Emporis)는 높이가 100m 이상, 위키피디아는 40층 이상,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40~50층 이상의 건물을 마천루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건축법 시행령(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m)을 포함한 마천루 높이의 정의 중 가장 낮은 기준이다.¹⁹

¹⁷ 구동회, “마천루의 의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1권 4호 (2015), p. 694.

¹⁸ Gerard Peet, “The Origin of the Skyscraper,” *CTBUH Journal*, no. 1 (2011), pp. 19~20., 재인용: 구동회, “마천루의 의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1권 4호 (2015), p. 694.

¹⁹ 구동회, “마천루의 의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p.693.

이 연구는 엠포리스의 정의를 따라 높이 100m 이상의 건축물을 북한의 마천루로 정의한다.

스카이스크래퍼페이지가 제공하는 마천루 지도에 따르면, 평양에서 높이가 100m 이상인 건축물은 총 79채다.²⁰ 류경호텔을 현재 활용되지 않으므로 개수에 포함하지 않았다. 2012년을 기준으로 그 전후의 마천루를 분류하면 전자 동안 총 22채, 후자가 총 57채로, 김정은 집권 시기에 2.6배 정도 더 많은 개수의 마천루가 건설됐다.

〈그림 1〉는 1980년대부터 매해 평양에 건설된 마천루의 개수, 연도별 최고층의 높이, 연도별 평균 높이를 나타낸 그래프다. 1980년대부터 활발했던 높이에의 강조,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의 성과 공백, 그리고 2010년대 마천루 건설의 부활을 알 수 있다. 연도별 최고층의 높이는 1982년 100m, 1986년 158m, 1995년 170m, 2015년 210m, 그리고 2022년에 273m로, 건축물의 초고층화를 보여 준다.

현재 평양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은 2022년 건설된 송화거리 메インタ워(높이 273m, 80층), 2017년 건설된 려명거리 살림집(높이 270m, 82층), 2015년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 은하타워(높이 210m, 55층) 순이다. 모두 김정은 집권 시기에 건설되었다. 그다음은 1995년 건설된 양각도호텔로, 높이 170m에 47층 규모다. 초고층의 기준이 김정은 집권 시기에 올라갔지만, 15년이라는 공백을 두고도 김정일 집권 시기 건축물이 높이에서 상위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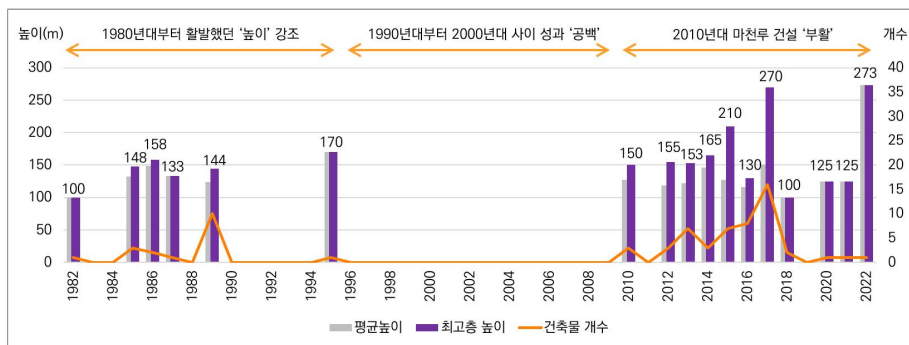
2. 김정은 시대 도시 권력의 증감

앞서 도출한 높이 100m 이상 평양의 마천루 총 79채에 대한 위치에너지의 계산 결과, 김정일의 마천루 22채와 김정은의 57채에 관한 각각의 위치에너지 총합은 2억 1천 5백만 대(215,914,720)와 5억 1천 7백만 대(517,603,531)의 수치다. 김정은 집권 시기 마천루의 위치에너지가 그 이전보다 약 2.4배 증가했다. 다만 이는 각 시기에 건설된 마천루의 위치에너지 값을 모두 더한 정량적 수치로, 시기 별 북한의 경제적 상황과 건설 경기, 그리고 마천루 건설기술의 발전 정도를 반영하지는 못한다.

²⁰ SkyscraperPage.com, 〈<https://skyscraperpage.com/cities/maps/?cityID=884>〉 (검색일: 2022.10.14.).

1970년대 북한이 살림집 건설에서 강조하던 ‘속도’는 1980년대에 들어 ‘높이’로 전환된다. 88서울올림픽 개최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1985년에 안골체육촌과 그와 인접한 곳에 광복거리에 아파트를 건설했다.²¹ 계획 규모는 2만 6천 세대 수용, 최고층은 42층 높다. 광복거리 아파트 중 3~5동은 35층에 높이는 122.5m로, 1980년대에 이미 상당한 마천루의 건설이 이뤄졌다.

〈그림 1〉 연도별 평양에 건설된 초고층 건축물 개수, 건축물 평균 높이, 가장 높은 건축물 높이



출처: 저자 작성

이후 1990년대 들어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어 마천루의 건설 역시 어려워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 1990년대에는 높이 100m 이상의 건축물은 한 채뿐이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에도 마천루 건설의 의지는 계속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황을 바탕으로 만약 북한의 마천루 건설 의지가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기술 발전에 따른 건설할 수 있는 높이는 증가하지만, 그 개수는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해볼 수 있다. 이 경우, 김정일과 김정은 집권 시기 동안 건설된 마천루 위치에너지의 각각의 합을 각 집권 시기 동안 건설된 마천루의 개수로 나눔으로써 당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두 권력의 규모 차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가정에 따른 김정일과 김정은 시기 마천루 한 채에 해당하는 위치에너지 평균값은 각각 9백8십1만 대(9,814,305)와 9백8만 대(9,080,764)다. 이러한 수치를 바탕으로 김정은 집권 시기에 들어 건설기술이 더욱 현대화되고 경제가 이전보다 회복기에 들어서면서

²¹ 전영선,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평양건설과 김정은의 아파트 정치』, p. 153.

마천루의 개수는 증가했지만, 한 채에 투영되는 권력의 규모는 변동 폭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 10년을 맞아 건설 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라고 자찬하며 “위대한 당 중앙의 독창적인 건축 발전 구상과 탁월한 영도 밑에 지난 10년간 건설에서 일대 혁명이 일어”났다고 주장한다.²² 그러나 앞서 비교한 마천루의 위치에너지는 개수의 증가 그 이상을 말하지는 않는다. 김정일과 김정은은 주어진 상황 안에서 최대한의 수직적 권력을 행사했고, 행사하고 있다. 마천루로 본 김정은의 ‘권력’은 스스로 얻어낸 것이기보다는 그 전 세대로부터 그대로 물려 받은 것임을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하다.

3. 평양 마천루 지도

〈그림 2〉는 평양에 건설된 마천루의 위치에너지를 시각화한 지도다. 입체 막대 그래프는 마천루가 위치한 지점에서 해당 위치에너지의 높이만큼 올라간다. 분홍색 그래프는 김정일, 녹색 그래프는 김정은의 집권 시기와 관련된다. 지도에서 입체 그래프의 바닥면적은 모두 같다. 따라서 입체 막대그래프의 높이는 모든 마천루가 같은 건축면적을 지닌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이 올라가는 정도를 보여준다. 건축물이 고층이면서 그 매스가 클수록 그래프는 더 길어지게 된다.

위 지도의 특징은, 첫 번째로 마천루가 모인 구역에 따라 건축물 간 높이 편차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지도에서 여러 마천루가 한데 모인 모습을 보이는 곳은 광복거리(1989년 준공), 창전거리(2012년 준공), 미래과학자거리(2015년 준공), 려명거리(2017년 준공)다(〈그림 2〉). 광복거리 외에는 모두 김정은 집권 시기에 준공됐다. 2022년에 준공한 송화거리는 메인타워만 이 연구가 정한 초고층 높이에 해당하여 지도에서는 그 부분에 단 하나의 그래프만 나타난다.

광복거리,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는 마천루가 모여있으면서도 그 모습에 차이가 있는데, 먼저 건축물 간의 높이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림 2〉에서 광복거리는 건축물 간의 높이가 거의 같지만,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는 건축물 간의 높이 차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통해 같은 그래프의 길이로 나타난 건축물 간의 외적 유사성, 그래프의 길이 차가 크게 나타난 건축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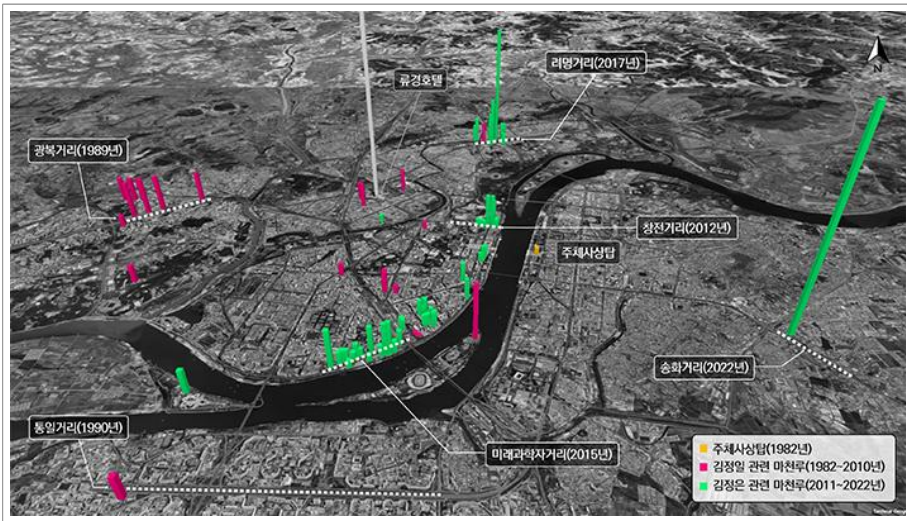
²² “북한” 김정은 10년간 건축분야 혁명…살림집을 첫 자리에”, 『한국경제』, 2021.2.8.,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202087808Y>> (검색일: 2022.9.16.).

간의 외적 다름 또한 추측할 수 있다.

그다음은 모여 있는 건축물 간의 간격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림 2>에서 광복거리의 유사한 높이의 건축물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지만, 나머지 셋은 사이의 거리가 매우 가깝게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들의 입지 특성의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림 2>에서 다수의 녹색 그래프가 대동강 변에 모여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김정은 집권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일수록 그 입지가 대동강에 접하는 경향을 보여 주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마천루는 ‘한 구역 내 건축물 높이 다양화’, ‘건축물의 밀집’, ‘강변으로의 건축물 이동’, ‘건축물의 외적 다양화’로 그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이는 지난 10년간 평양에 나타난 급진적 변화이므로, 최근의 평양이 평해튼으로 불린 것과 연관지어 고찰할 수 있다. 반면, 그 이전 시기의 특징은 평해튼에 구체화된 이미지를 제공한 맨해튼과 대조적인 측면을 보일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추측을 확인해볼 수 있는 분석 틀을 도출한다.

〈그림 2〉 평양 마천루 시각화 지도



출처: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3D Maps에서 저자 작성

III. 반맨해튼-맨해튼 스펙트럼

맨해튼 역사에 관한 콜하스의 사유와 르 코르뷔지에의 이상적 도시계획은 각 도시 형성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형태로서 고려되었다. 마천루를 연결고리로 유사한 지점을 지닌 이 두 이론은 ‘계획 단위’, ‘구성 프로그램’, ‘건축물 외관’, ‘도시 녹지’의 측면에서 서로의 차이를 비교해볼 수 있다.

1. 계획 단위

콜하스는 맨해튼이 초밀도 도시에 이르게 된 원인으로 그리드를 꼽는다. 맨해튼은 바다로 둘러싸인 섬으로, 단가가 높은 이 섬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방법은 공간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었다. 이에 1800년대 초반 계획 당시 대지는 일정한 간격으로 나뉘어 모든 블록이 같아졌고, 콜하스에 따르면 그리드에 의한 2,028개의 블록은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직각의 주택을 유도하여 더욱 많은 인구에게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공평함의 상징이 되었다.²³

르 코르뷔지에 또한 계획에서 그리드와 유사한 직선을 강조하지만, 그가 “당나귀의 길”이라 부른 전통적 도시의 구불구불한 길에 대한 비판에서 유래했다는 점에서 구분된다.²⁴ 그는 “현대도시는 직선에 의지하여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²⁵ 직선으로 이뤄진 계획 단위의 간격은 400m와 200m인데, 르 코르뷔지에에 따르면 이 단위가 만들어낸 바둑판무늬는 고가도로, 업무·주거지역, 정원으로 이뤄진 현대 도시의 삶에 적합한 효율적 체계를 담아낼 수 있는, “혼돈의 뉴욕”을 정복한 “빛 아래에 있는, 현대의 도심지”다.²⁶

2. 구성 프로그램

근대 사회에 들어 과거 수평적으로 전개됐던 생활양식이 철골구조로 층층이 쌓이게 되면서, 예전의 단독 주택과 부수적 기능들, 건축 양식들과 정원 등과 같은

²³ 렘 콜하스 지음, 김원갑 옮김, 『광기와 밀집문화의 건축: 광기의 뉴욕』, p. 23.

²⁴ 르 코르뷔지에 지음, 정성현 옮김, 『도시계획』, p. 19.

²⁵ 위의 책, p. 24.

²⁶ 위의 책, p. 184.

삶의 형태는 인공적 층별로 전시되도록 변화한다.²⁷ 마천루에 독립적 생활이 쌓이는 구조는 ‘개인 생활’이라는 새로운 생활양식을 탄생시키게 되는데, 콜하스가 “뇌엽 절제 수술”이라 칭하는 이러한 생활의 분리는 내부의 화려함과 은밀함을 증폭시켰다.²⁸ 맨해튼의 어떤 건축물 중 한 층은 영국식 정원을 이식한 실내 골프장이 되기도 하면서 각각의 층에 어떤 삶이 들어가더라도 외적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되었고, 이로서 내부는 건축물 외부부터 완전히 분리되었다.

맨해튼이 하나의 마천루 각 층에 서로 다른 생활을 적층시켰다면, 르 코르뷔지에의 마천루는 건축물이 서로 최대한 멀리 떨어지되 하나의 마천루에 단일한 사무 활동이 계획되었다. 건축물을 가르는 길의 교차점은 대도시에서의 사무 활동을 위한 교통의 핵심이다.²⁹ 르 코르뷔지에의 계획에서 도심지 중앙은 근대 산업활동의 구심점이므로 그곳의 마천루는 사무실이 되어야 한다.³⁰ 업무의 최대 효율성을 위해 주거시설은 사무실 가까이에 배치된다. 하나의 건축물이 단일 프로그램을 가지 되, 도심의 교통 인프라를 중심으로 점차 확장되는 구조가 르 코르뷔지에 도시계획의 특징이다.

3. 건축물 외관

맨해튼의 그리드는 도시가 예전의 관습적인 방법으로는 성장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콜하스의 주장이다.³¹ 전통적 도시 디자인은 각기 다른 마을과 도시의 구조를 통해 서로 다름을 만들어냈지만, 싱어(Singer) 빌딩을 사례로한 그리드는 건축물 사이에서 ‘외관’의 새로운 경쟁을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³² 싱어 빌딩은 1899년에 14층의 블록형이었지만, 1908년에는 블록 위에 타워가 추가로 얹히게 된다. 타워 최상부에는 등대처럼 도시를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설치됐는데, 이러한 형태적 특징은 맨해튼의 건축물이 ‘빌딩’에서 ‘마천루’로 바뀌 불리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³³

르 코르뷔지에는 도시계획에서 표준화, 세부의 일관성, 그리고 전체적 조화의

²⁷ 렘 콜하스 지음, 김원갑 옮김, 『광기와 밀집문화의 건축: 광기의 뉴욕』, p. 97.

²⁸ 위의 책, p. 121.

²⁹ 르 코르뷔지에 지음, 정성현 옮김, 『도시계획』, p. 121.

³⁰ 위의 책, p. 108.

³¹ 렘 콜하스 지음, 김원갑 옮김, 『광기와 밀집문화의 건축: 광기의 뉴욕』, p. 23.

³² 위의 책, p. 106.

³³ 위의 책, p. 106.

운동을 강조했는데, 마천루는 그 개념의 형태적 구현이라 할 수 있다.³⁴ 콜하스는 르 코르뷔지에에게 건축물의 외관이란 건축물의 기능 그 자체였으며, 그러한 생각이 르 코르뷔지에의 건축물을 밑바닥과 꼭대기를 구분할 수 없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발현시켰다고 주장한다.³⁵

4. 도시 녹지

맨해튼에서 녹지는 ‘공원과 도시’로 각각 존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드를 바탕으로 한 맨해튼 계획 이후, 1850년까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녹지를 남겨두기 위해 급히 만들어진 계획이 지금의 센트럴파크로 이어졌다.³⁶ 그리드가 공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각형의 건축물을 유도한다면, 센트럴파크를 구성하는 곡선의 호수와 산책로는 그곳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대한 자연처럼 보이도록 사람들의 시각을 유도한다.

빛나는도시 계획에서 녹지는 ‘공원 속 도시’로 존재한다. 르 코르뷔지에에게 마천루는 그 높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도시 면적을 정원과 산책로로 돌려주기 위한 수단이다.³⁷ 마천루 사이로 확보된 넓은 폭의 공간은 고속차량을 위한 대규모 횡단도로뿐만 아니라 정원과 공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³⁸ 앞서 고찰한 네 가지 측면의 비교 내용을 정리한 반맨해튼-맨해튼 스펙트럼은 〈그림 3〉과 같다.

IV. 평해튼의 조건들

사회주의 도시와 자본주의 도시는 이름만으로는 서로 다른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만, 공간 구조와 그에 따른 생활양식에서 닮아가는 부분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본주의 도시에 대한 비판으로서 사회주의 도시에서 탄생했지만 지금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주상복합아파트가 대표적이다.³⁹ 빛나는도시 계획과 맨해

³⁴ 르 코르뷔지에 지음, 정성현 옮김, 『도시계획』, pp. 81~83.

³⁵ 렘 콜하스 지음, 김원갑 옮김, 『광기와 밀집문화의 건축: 광기의 뉴욕』, pp. 290~291.

³⁶ 위의 책, p. 26.

³⁷ 르 코르뷔지에 지음, 정성현 옮김, 『도시계획』, p. 238.

³⁸ 위의 책, p. 179.

³⁹ 전영선,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평양건설과 김정일의 아파트 정치』, pp. 82~83.

튼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또한 이러한 배경에서 설명 가능하다. 이 장에서는 앞서 도출한 분석 틀을 토대로 최근의 평양이 과거의 것과 구분되는 지점을 살펴본다.

〈그림 3〉 반맨해튼-맨해튼 스펙트럼

기준	반맨해튼(빛나는도시)	맨해튼
계획 단위	• 현대 도시의 효율성 위한 넓은 간격	• 대지면적 대비 최대한의 공간 활용
구성 프로그램	• 교통인프라 중심의 구역 계획 • 하나의 건축물에 하나의 프로그램	• 건축물 내부로 빨려 들어간 전통적 도시의 흔적들
건축물 외관	• 표준화, 일관성, 전체적 조화 • 내부 기능을 그대로 드러낸 투명성	• 전통을 쌓아 만들어낸 새로운 외관
도시 녹지	• 공원 속 도시	• 공원과 도시

출처: 저자 작성

1. 김정은 집권 전후 평양 마천루의 계획 단위 변화

약 30년의 시간차를 두고 건설된 광복거리와 려명거리는 계획 단위에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그림 4〉). 광복거리에 대해 『로동신문』은 이 거리의 중심 도로 폭이 100m로 “넓고 시원하게 뻗”어 있고, 그 양옆으로 건축물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한다.⁴⁰ 구역 건설에서 직선의 넓은 간격 확보를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광복거리와 대조적으로, 2017년 건설된 려명거리는 넓은 간격보다는 공간의 최대 활용이 중시되었다. 『조선건축』은 려명거리 건축물에 대해, “부지리용률을 최대한 높이고 거리안에 거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지어졌다고 설명한다.⁴¹ 주어진 대지면적을 건축물로 최대한 활용하고자 한 점, 그 결과로 건축물 사이의 간격이 이전보다 가까워졌음을 설명에서 파악할 수 있다(〈그림 4〉).

⁴⁰ “광복거리가 새로 일떠선다,” 『로동신문』, 1986.4.1., 1면.

⁴¹ 정성철, “려명거리건축형성의 몇가지 특징,” 『조선건축』, 104호 (2017), p. 41.

2. 김정은 집권 전후 평양 마천루의 구성 프로그램 변화

1980~90년대 건설된 광복거리와 통일거리, 그리고 김정일 집권 시기에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를 통해 거리 구성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핵심 인프라의 변화를 볼 수 있다(〈그림 4〉). 아래의 두 『로동신문』 기사는 광복거리에 대해, 거리를 기능적이고 미적인 측면에서 돋보이게 해주는 구역 내 교통 인프라의 역할을 강조한다.

“광복거리 대도로에 건설된 립체다리는 평양시 중심부와 만경대지구의 여러곳을 연결하는 훌륭한 구조물로서 경쾌한 도로들, 주변건물들과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광복거리의 풍치와 건축미를 더욱 돋구어준다.”⁴²

⁴²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선 광복거리,” 『로동신문』, 1989.5.3., 4면.

〈그림 4〉 반맨해튼-맨해튼 스펙트럼 적용 김정은 체제 전후 마천루의 변화⁴³

기준	김정은 체제 이전	김정은 체제 10년
1. 계획 단위 변화	 광복거리 균일한 높이와 넓은 간격	 려명거리 다양한 높이와 가까운 간격
2. 구성 프로그램 변화	 광복거리 초입 순환도로 교통인프라 중심 단지 배치	 미래과학자거리 전망 중심 단지 배치
	 개선영화관 기능에 따른 수평적 배치	 미래영화관 마천루로 흡수된 프로그램
3. 건축물 외관 변화	 통일거리 건설과정 유형화된 건축물의 합과 통일성	 미래과학자거리 건설과정 우선순위에 따른 독립적 건축물
4. 도시 녹지 변화	 통일거리 녹지 규모와 연결성이 강조된 녹지	 창진거리 아파트 녹지 려명거리 아파트 녹지 수직 방향으로 분배된 녹지

〈그림 5〉 미래과학거리를 내려다보는 입주민들⁴⁴



거리에는 지하철도망과 발달된 지상교통망이 함께 건설되어 이 거리에서 살게 될 사람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해주게 된다.⁴⁵

통일거리를 소개한 아래의 『로동신문』 기사 또한 거리의 장점으로 중심 도로와 입체적 도로망을 꼽는다. 1980~90년대 고층 살림집 건설 전반에서 교통인프라가 구역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역할 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⁴³ [광복거리 사진]편집부, “광복거리살림집들,” 『조선건축』, 10호 (1990), pp. 88~89., [려명거리 사진]『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0445>〉 (검색일: 2022.11.2.), [광복거리 초입 순환도로 사진]『로동신문』, 1989.5.3., 4면; 편집부, “청년호텔(1),” 『조선건축』, 13호 (1990), p. 10., [미래과학자거리 사진]『로동신문』, 2015.11.15., 2면., [개선영화관 사진]『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s://unibook.unikorea.go.kr/data/movieSummary06>〉 (검색일: 2022.11.2.), [미래영화관 사진]『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CK20160318001100881>〉 (검색일: 2022.11.2.), [통일거리 건설과정 사진]『로동신문』, 1991.4.22., 3면; 『로동신문』, 1992.4.6., 4면., [미래과학자거리 건설과정 사진]『월간중앙』,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21749>〉 (검색일: 2022.11.2.);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51028204800014>〉 (검색일: 2022.11.2.), [통일거리 녹지 사진]『조선건축』, 24호 (1993), p. 21., [창전거리아파트 사진]편집부, “창전거리 지하봉사망,” 『조선건축』, 82호 (2013), p. 44. [려명거리 아파트 사진]『뉴스원』, 〈<https://www.news1.kr/articles/?4453563>〉 (검색일: 2022.11.2.).

⁴⁴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찾아서,” 『로동신문』, 2015.11.9., 5면.

⁴⁵ “광복거리가 새로 일떠선다,” 『로동신문』, 1986.4.1., 1면.

90년대의 첫 거리로서의 통일거리는 도로시설망도 새 맛이 나게 참신하게 형성되었다. 광복거리의 중심도로와 같은 120미터 폭에 수키로미터의 연장길이를 가진 중심 도로… 다양한 형식으로 도로망을 연결해주는 로성립체다리.⁴⁶

한편, 김정은 집권시기인 2015년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에서는 ‘강변’이 입지 결정의 주요 변수가 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그림 4〉). 『로동신문』은 미래과학자 거리에 대해, “풍치수려한 대동강기슭을 따라 웅장화려하게 일떠”섰다고 소개함으로써 거리가 바꾼 강변을 강조한다.⁴⁷ 미래과학자거리의 입주민들이 고층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는 〈그림 5〉은 강변의 입지가 마천루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형성된 경관뿐만 아니라 그곳에 입주한 사람들이 내려다보게 될 전망 또한 건축물의 가치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추측하게 한다.⁴⁸

〈그림 6〉 창전거리와 미래과학자 거리에 위치한 마천루 저층부 간판⁴⁹



김정은 집권 전후의 영화관에서도 마천루의 구성 프로그램 변화를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영화관은 체제를 선전하며 도시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김수현은 해방 후 북한이 발행한 사진엽서들에 새로 건설된 거리의 건축물과 같은 북한이 홍보하고 싶은 모습이 담겨 있음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는 1955년 스탈린 거리에 건설된 대동문영화관도 포함된다.⁵⁰ 그밖에 인민문화궁전, 락원영화관, 선교

⁴⁶ “당의 구상따라 웅장하게 솟아난 통일거리,” 『로동신문』, 1992.2.1., 3면.

⁴⁷ “세계와 겨루는 우리의 건축예술,” 『로동신문』, 2015.12.14., 5면.

⁴⁸ “붉은 창가에 어린 공민적자각,” 『로동신문』, 2015.11.20., 5면.

⁴⁹ 편집부, “김정일애국주의의 빛나는 구현: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 『조선건축』, 81호 (2012), p. 19; 황후남,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로 훌륭히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 『조선건축』, 94호 (2016), pp. 20~21.

영화관, 동대원영화관, 락랑영화관, 통일거리 영화관이 대동문영화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건축물이다(〈그림 4〉).

반면, 김정은 집권기에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 김책공업대학 교육자살림집 저층부에 위치한 룰동영화관은 마천루 구성 프로그램으로서 건축물 내부로 흡수된 모습이다(〈그림 4〉). 이에 더해, 미래과학자거리와 2012년 건설된 창전거리의 다양해진 간판 디자인은 다수의 프로그램이 마천루 내부에 위치하는 동시에, 이를 외부로 드러내고자 하는 경향을 동시에 보여준다(〈그림 6〉).

3. 김정은 체제 전후 평양 마천루의 외관 변화

『로동신문』은 1990년대 건설된 통일거리를 “병풍식, 탑식, 묶음식으로 조화를 이루며 … 웅장화려함을 더욱 부각시켜주는 덩치 큰 살림집들”로 소개하는데,⁵¹ 이는 당시 대단지 계획이 몇 가지의 건축물 유형을 기초로 통일성을 추구했음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다만 한 가지의 건축물 유형은 하나의 구역 단위 안에서만 배치됨으로써 통일성과 다양성을 모두 추구하고자 했다.⁵² 유형화된 건축물의 형태는 그 평면도만으로도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데, 마치 평면도를 바닥에 놓고 Z축을 향해 늘린 것처럼 한 층에 해당하는 입면이 매 층 반복되는 것이 당시 건축물들 전반의 특징이다(〈그림 4〉).

위 시기와 대조적으로, 김정은 집권 시기에 건설된 건축물들은 입면의 화려함과 건축물의 각기 다름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구분된다. 이러한 특징은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에서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다. 앞서 통일거리가 유형별 건축물이 동시적으로 건설되었던 것과 달리, 미래과학자거리에서는 김책공업대학교육자살림집이 2014년에 우선 완공되어 10월에 교육자들이 입주했다.⁵³ 하지만 미래과학자거리의 준공식은 1년 뒤인 2015년 11월이다.⁵⁴ 한 구역의 건설이 동시적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우선순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한편, 각각의 건축물 또한 서로 구분되는 외관을 갖춘 점이 김정은 집권 시기 건축물의 특징이다(〈그림 4〉).

⁵⁰ 김수현, 『제국의 억압과 저항의 사회사: 사진과 엽서로 본 근대 풍경』(서울: 민속원, 2011), p. 180.

⁵¹ “당의 구상따라 웅장하게 솟아난 통일거리,” 『로동신문』, 1992.2.1., 3면.

⁵² 최용술, “건축적다양성보장문제의 독창적인 해결,” 『조선건축』, 57호(2006), p. 35.

⁵³ “우리 교육자들이 안겨사는 품,” 『로동신문』, 2014.10.23., 3면.

⁵⁴ “새집들이경사로 흥성이는 미래과학자거리를 찾아서,” 『로동신문』, 2015.11.9., 5면.

4. 김정은 체제 전후 평양 마천루 주변 도시 녹지 변화

『공원속의 도시 평양』은 북한의 여러 문헌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⁵⁵ 1985년 『조선예술』에 실린 선전화의 제목 〈우리가 사는 거리를 아름다운 공원속의 도시로!〉에서 이 문구의 쓰임이 오래됐음을 파악할 수 있다.⁵⁶ 평양을 공원 속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1980년대 중반에 보인 것처럼, 녹지 조성은 당시 본격화된 대규모 구역 단위 건설 계획의 일환이었다. 『조선건축』은 광복거리에 대해, “매 구획에는 자연기복과 연결되어 풍치구를 이루는 공원과 휴식구들이 꾸려져있고 물놀이장, 분수, 수영장, 놀이터, 소공원들이 조직되어있다. 그리하여 매 구획이 마치 공원속에 들어 앉은듯한 감을 안겨준다”고 설명한다.⁵⁷ 하나의 구역 단위에서 녹지가 기존의 자연녹지와 연결고리를 이루는 것이 경관 측면의 완성도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그림 4>).

2012년 창전거리에서는 아래의 설명과 같이 지상에서 지하로 이어지도록 한 전이공간에 녹지가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그림 4>).

지하도로위에 꾸려진 공지에서보면 더욱더 이채로운 세부들을 많이 느낄수 있다. 파아란 잔디밭속에서 설레이는 나무들, 갖가지 화단들이며 독특하게 설계된 의자들...지하도로위에 이런 공원이 번듯하게 건설된것도 좋다...거리에서 식당으로, 식당에서 지하도로으로, 지하도로에서 지상공원으로, 지상공원에서 식당으로...유기적으로 결합시켜놓으니 얼마나 좋은가.⁵⁸

창전거리가 지하 방향으로 녹지를 확장한다면, 아래 설명대로 려명거리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활발한 옥상·지붕 녹화 사업을 보여준다(<그림 4>).

30층, 바로 여기에 그 특색있는 집이 자리잡고있었다...드넓은 공간에 장기와 옷놀이 등 각종 오락은 물론 학습을 할수있게 의자를 비롯한 여러 시설들이 곳곳에 갖추어져있는것이 꼬 야외공원에 나선 듯 한 기분이었다...아파트앞에도 공원, 아파트 안에도 이런 훌륭한 휴식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구름위에 자리잡은 이 휴식터...⁵⁹

⁵⁵ 한번조 역음, 『공원속의 도시 평양』(평양: 조선화보사, 2002).

⁵⁶ 편집부, “우리가 사는 거리를 아름다운 공원속의 도시로!,” 『조선예술』, 7호 (1985), 표지2면.

⁵⁷ 권영태, “우리 식 거리의 또하나의 훌륭한 본보기: 광복거리의 건축형상 몇가지 특징에 대하여,” 『조선건축』, 13호 (1990), p. 6.

⁵⁸ “립체적으로 결합된 지상, 지하공간,” 『로동신문』, 2012.6.28., 3면.

위 설명은 점차 줄어드는 녹지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 원인을 제공한 마천루의 수직성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해석된다. 계속되는 신도시 건설, 그리고 한 구역 안에서 점차 밀집되는 건축물은 녹지를 공중과 지하를 향하도록 만든다. 이 새로운 녹지의 특징은 그 공간이 공공에서 개인의 영역으로 이동한 것에 있다. 개인의 감상으로 전해질 수밖에 없는 Z축 녹지에서 공원 속 도시 평양의 급진적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V. 평해트니즘의 미래

김정은 체제의 마천루는 그 이전 체제와 마찬가지로 높은 층으로 이뤄진 생활양식을 통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건설사업 기조를 유지한다. 반맨해튼과 맨해튼 사이에서 살펴본 최근의 평양은 점차 계획 단위, 내부 프로그램, 건축물 외관, 도시 녹지 차원에서 맨해튼을 향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한 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다양한 높이와 가까워진 건축물의 간격, ‘교통’에서 ‘전망’으로 옮겨간 거리의 핵심 인프라, 독립적인 건축물에서 점차 마천루로 흡수된 프로그램, 통일성과 조화를 추구하는 동시적 건축에서 우선순위에 따른 각기 다른 외관의 건축, 그리고 수평에서 점차 수직 방향으로 분배 방향을 달리하는 녹지, 이들은 평양이 ‘평해트’이라 불리는 충분조건을 마련했다.

만약 평양이 마천루로 이뤄진 도시의 밀집과 고도화를 추구한다면, 앞서 충분조건에 따라 그 모델인 맨해튼의 발전 방향과 궤를 함께할 것이라 가정해볼 수 있다. 평양은 마천루를 통한 도시 이상향을 앞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까? 이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레인 노에(Rain Noe)는 뉴욕의 마천루가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데에는 그곳에 거주하는 이들의 삶을 위해 건축물에 가해졌던 규제가 지배적으로 작용했음을 강조한다.⁶⁰ 1916년 뉴욕의 조닝 결의안(Zoning Resolution)은 당시 한정된 그리드 내에서 가능한 한 최대 크기의 건축물을 만들면서 발생한 그림자 문제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었다. 건축물의 높이는 마주한 도로 폭이 결정하며, 더 높은

⁵⁹ “류다른 휴식터,” 『로동신문』, 2013.10.19., 4면.

⁶⁰ Rain Noe, “Shape of New Luxury Condo Building is a Perfect Metaphor for Our Society,” Core77, September 21, 2021, <<https://www.core77.com/posts/110081/Shape-of-New-Luxury-Condo-Building-is-a-Perfect-Metaphor-for-Our-Society>> (검색일: 2022.11.10.).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상부를 그만큼 더 축소해야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맨해튼에서 볼 수 있는 마천루 꼭대기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는 이러한 규제에서 유래한다.

1961년에는 여러 방면의 오픈스페이스의 마련을 조건으로 더욱 거대한 매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을 조정하는 새로운 건축규제안이 통과한다. 도시에서 볼 수 있는 건축물 사이사이, 개방된 저층부, 지하, 옥상 등을 활용한 녹지를 포함하는 건축물 형태는 이러한 규제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나라에도 건축법 내 도로사선제한, 일조권 관련 법규에서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어떤 도시든 마천루가 있다면 그 형태는 단계적 또는 급진적 발전상을 가지며, 이는 그 도시의 상황과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노에(2021)가 진단한 그다음 단계의 건축물은 뒤집힌 형태다.⁶¹ 아래는 좁게, 상부는 그보다 커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한다. 위치에너지 측정 이론에서 높은 부분의 부피가 클수록 에너지 값이 커지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이며, 높은 곳에 매스를 올리는 것은 어려운 기술이기에 그만큼 과시의 권력으로 치환된다.⁶²

앞서 살펴본 김정은 체제의 마천루는 높이, 형태의 다양성, 그리고 녹지의 분배 측면에서 그 전의 평양과 다르다. 이는 평양이 다른 마천루 도시의 상황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평양의 마천루가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지금 이상의 권력을 보여줄 수 있는가를 묻는다면, 오늘날의 류경호텔이 이에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류경호텔을 덮은 조명은 마천루를 통한 권력의 전시가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한다. 김정일이 짓기 시작한 류경호텔은 아직도 북한에서 가장 높다. 상층부로 갈수록 정직하게 좁아지는, 여전히 공실인 피라미드에서는 그 이상의 기술과 발전상을 발견하기 어렵다. 대신 마천루의 개수만큼 밝힌 화려한 조명으로 이러한 어둠을 덮을 뿐이다.

평양의 마천루로 본 김정은 체제의 권력은 계승 받은 만큼의 힘에서 그 이상의 확산을 꾀하고 있지만, 그 방향과 속도에서 상당히 정체되어 있다. 김정은 시대의 빛나는 마천루 도시는 이러한 정체를 감추는 시각적 전략이다.

■ 제출: 4월 26일 ■ 심사: 5월 26일 ■ 채택: 5월 30일

⁶¹ 위의 글.

⁶² 유현준,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꾼다』, pp. 186~187.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수현. 『제국의 억압과 저항의 사회사: 사진과 엽서로 본 근대 풍경』. 서울: 민속원, 2011.
- 김정일. 『건축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램 콜하스 지음. 김원갑 옮김. 『광기와 밀집문화의 건축: 광기의 뉴욕』. 서울: 세진사, 2001.
- 램 콜하스 지음. 김원갑 옮김. 『광기와 밀집문화의 건축: 밀집문화의 건축』. 서울: 세진사, 2001.
- 르 코르뷔지에 지음. 정성현 옮김. 『도시계획』. 서울: 동녘, 2007.
- 유현준. 『어디서 살 것인가: 우리가 살고 싶은 곳의 기준을 바꾼다』. 서울: 을유문화사, 2018.
- 전영선.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평양건설과 김정은의 아파트 정치』. 서울: 경진출판, 2022.
- 필립 뚬제아, “건축적 호기심의 방: 평양 거닐기.” 필립 뚬제아 역음. 윤정원 옮김. 『이제는 평양건축』. 서울: 답디, 2012.
- 한번조 역음. 『공원속의 도시 평양』. 평양: 조선화보사, 2002.

2. 논문

- 구동희. “마천루의 의미와 상징성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21권 4호, 2015.
- 장용순. “‘광기의 뉴욕’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특성에 대한 연구: 편집증적 분석 방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제35권 2호, 2019.
- Gjerløw, Haakon and Carl Henrik Knutsen, “Autocrats and Skyscrapers: Modern White Elephants in Dictatorships.” *V-Dem Working Paper*. 2017:44, 2017.
- Peet, Gerard. “The Origin of the Skyscraper.” *CTBUH Journal*. no. 1, 2011.

3. 기타 자료

『뉴스원』.
『로동신문』.
『송대시보』.
『연합뉴스』.
『월간중앙』.
『통일뉴스』.
『한국경제』.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https://unibook.unikorea.go.kr/>>.

Skyscraper Page <<https://skyscraperpage.com/>>.

정성철. “려명거리건축형성의 몇가지 특징.” 『조선건축』. 104호, 2017.

권영태. “우리 식 거리의 또하나의 훌륭한 본보기: 광복거리의 건축형성상 몇가지 특징에 대하여.” 『조선건축』. 13호, 1990.

최웅술. “건축적다양성보장문제의 독창적인 해결.” 『조선건축』. 57호, 2006.

편집부. “광복거리살림집들.” 『조선건축』. 10호, 1990.

_____. “김정일애국주의의 빛나는 구현: 새로 일떠선 창전거리.” 『조선건축』. 81호, 2012.

_____. “우리가 사는 거리를 아름다운 공원속의 도시로!.” 『조선예술』. 7호, 1985.

_____. “창전거리 지하보사망.” 『조선건축』. 82호, 2013.

_____. “청년호텔(1).” 『조선건축』. 13호, 1990.

황후남, “로동당시대의 선경거리로 훌륭히 일떠선 미래과학자거리.” 『조선건축』, 94호 (2016), pp. 20~21.

Noe, Rain. “Shape of New Luxury Condo Building is a Perfect Metaphor for Our Society.” *Core77*. September 21, 2021. <www.core77.com>.

Abstract

Pyongyang, Pyonghattan, and Pyonghattanism during the Kim Jong-Un era in North Korea

Ahn, Jin-Hee and Sim, Jisoo

This study compares the power of Kim Jong-il and Kim Jong-un through the lens of skyscrapers as symbols of their regimes' power. While the number of skyscrapers in Pyongyang increased during Kim Jong-un's era, there was little change in the scale of power projection per building compared to his predecessor. This aspect indicates that Kim Jong-un inherited his power rather than acquiring it himself. Next, we compared the urban planning centered around skyscrapers during the two leaders' eras. As a result, Pyongyang under Kim Jong-un's leadership showed similarities to Manhattan, as evidenced by its nickname "Pyonghattan". Manhattan's skyscrapers evolved into a form where the unit area per unit increased as the building height increased, a difficult technological achievement that was replaced by the power of ostentation. However, Pyongyang's Ryugyong Hotel is still the tallest building, and it is difficult to find any further developmental progress beyond the pyramid of empty space that narrows. The power of the Kim Jong-un regime viewed through skyscrapers shows that it is striving to expand beyond the inherited power, but is considerably stagnant in terms of direction and speed. The skyscraper city of the Kim Jong-un regime is a visual strategy to hide this stagnation.

Key Words: Kim Jong-il, skyscraper, Rem Koolhaas, Le Corbusier, Radian City, Manhattan, Manhattanism